

보도시점 : 2023. 4. 13.(목) 11:00 이후(4.14.(금) 조간) / 배포 : 2023. 4. 13.(목)

4월 16일 오후 5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전 구간 통행이 재개됩니다

- 방음터널 화재발생 구간 안전점검 및 복구공사 마무리
- 삼막IC에서 북의왕IC까지 7.26km 구간 재개통 예정
- ‘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’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그간 통행이 제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~북의왕IC, 7.26km 구간의 통행이 4월 16일(일) 오후 5시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.
 -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연성(PMMA, 폴리메타크릴산메틸)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 붙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곳으로,
 - 사고 이후에 경기도 안양시 삼막IC부터 경기도 의왕시 북의왕IC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었으나, 이번에 통행이 재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.
-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, 국토안전원과 한국도로공사, 구조물유지관리공학회 등 전문기관과 현장점검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.
 - 긴급안전점검 결과, 화재로 인한 교량부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, 이후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노면의 재포장 및 화재로 손상된 방호벽의 단면보수 등 복구공사를 시행하였다.
 - 또한, 경찰청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등 재개통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고 해당 구간을 재개통하게 되었다.

-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‘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’을 발표(2.2.)한 바 있으며,
 -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에 위치한 가연성 (PMMA, 폴리메타크릴산메틸) 소재의 방음터널을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전면 교체하고,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“해당 구간은 출퇴근 교통량이 많아 많은 이용자들께서 불편을 겪어 왔는데, 이번 통행 재개로 불편이 해소 되기를 기대”한다면서,
 - “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‘방음 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’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	정천우 (044-201-4100)
		담당자	사무관	장준희 (044-201-3906)
<공동>	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헌태 (02-2110-6830)
		담당자	주무관	장성아 (02-2110-6832)



참고

통행 재개 구간 위치도

